

# 이 대통령, 이탈리아·폴란드 정상회담... 마크롱 만남 불발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이탈리아와 폴란드 정상을 차례로 만났다. 당초 예정됐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은 취소됐다.

이 대통령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먼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규연 홍보소통 수석이 이날 오후 뉴욕에서 정세회담 성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두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한 이탈리아 양국이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양국 정부와 기업이 인공지능(AI), 방산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고, 멜로니 총리도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의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했다.

멜로니 총리는 자신의 딸이 'K팝 팬'이며, 한국 전반에 대해 관심이 높다고도 소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멜로니 총리 방한 시 한류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이 이탈리아 방문 의사를 밝혔고, 멜로니 총리도 국민 초청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한 협력 분야별 중보한 협의를 통해 양 정상 상호 교류가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카를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 첫 양자회담을 갖고 국방과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K2전차가 납품 시기를 잘 지켜 도입되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가 품질도 좋고 가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전날엔 우즈벱·체코 정상과 연쇄회담... 순방기간 총 4개국 만나

### 李·이탈리아 정상, 상호 방문 의사 밝혀... 폴란드와 방산협력 논의

성비도 좋고 납품 일정을 절대 어기지 않는 장점이 크다. 다른 방산 체계에도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폴란드가 최근 추진 중인 잠수함 사업을 언급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도 한국 방위산업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이날 한국 대통령 최초로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제안한 'AI(인공지능)' 주제가 시의적절하다고 공감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상호 방문을 통해 한-폴란드 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 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날 당초 예정됐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은 불발됐다. 프랑스 측이 국내 사정을 이유로 정상회담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프랑스) 국내 상황이 급히

발생해 회담하기가 어려우니 양해를 구한다는 연락이 회담 한 시간 전쯤 왔다"며 "G20(주요 20개국) 회의 등 다른 국제 무대에서 만나길 희망한다는 이야기가 왔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방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3박5일 미 순방 기간 동안 총 4개국 정상과 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샤브카트 미르지야예프 우즈벱 키스탄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을 각각 만났다. 이 대통령은 우즈벱 키스탄-체코 정상과도 경제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뉴시스

## 광주시장 선거 여·야 후보군 윤곽... 野 선수 교체

광주시장 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후보군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입지가 추가되면서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되고, 야권은 상당수 선수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천률 등 변수도 적잖아 후보군이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내년 6월 광주시장 선거 출마 후보군으로 현재 9~10명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경선은 5~6파전 양상이고, 본 선거에선 민주당에 맞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국민의힘 등이 다자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주자로는 박광대 시장 이후 20년 만에 '재선 시장'에 도전하는 강기정 현 시장에 맞서 행정 달인 문인복 구청장, 광주 유일 다선 의원인 민형배 의원, 광주 문화경제부시장 출신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 광주시의회 의장, 민주당 최고위원 출신 이형석 전 국회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40대 기수 정준호 의원이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하고, 지역 내 보폭을 넓히고 있다.

야권의 물밑 움직임도 분주하다. 조국혁신당에선 서왕진 원내대표

겸 시장위원장의 등판이 유력시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정책특보와 서울연구원장을 역임하며 정책과 행정을 두루 경험한 기후환경 전문가다. 정의당에선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강은미 광주시장위원장이 출마할 예정이다.

노동운동가로 광주에서 기초의원, 광역의원을 차례로 거쳤고, 정의당 중앙당 원내대표까지 지냈다.

진보당은 단골등판했던 김주엽 광주시장위원장을 대신 새로운 인물이 링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장, 구청장, 시·구의원 인선 작업과 맞물려 큰 틀의 전략을 구상 중이다.

국민의힘은 당 안팎의 조직 정비와 함께 김정현 전 시장위원장 뿐 아니라 일부 당협위원장 출신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중앙당 전략공천이나 지역 내 추대 가능성도 제기돼 선수 교체가 거론된다.

지역계가 관계자는 "정권 교체 후 민주당에 정치적 힘이 쏠리는 가운데 야당은 돌풍과 선전을 기대하며 조직 정비와 인재 영입에 올 인하는 분위기"라며 "공천 물과 단일화, 30% 안팎의 부동층 확보와 함께 늘 그렇듯,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기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당정 "보이스피싱 범정부 통합대응단 설치... 배상 책임·처벌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보이스피싱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설치하고, 전담 수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권 등의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은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보이스피싱 TF(태스크포스) 간사인 조인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발대식 및 당정협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당정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정부는 유관 기관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범행 탐지 강화, 금융권 등 피해 방지 배상 책임 강화, 수사 및 처벌 강화 중점을 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에서는 ▲범정부 통합대응단 설치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 ▲사기죄 법정형 상향 등 대책을 논의했다고 조의원이 전했다.

조 의원은 "통합 신고 대응 센터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설치하고, 금융·통신 수사 분야의 유기적 연계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전담 수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보이스피싱 TF를 구성해 수사 예방·국제 협력 등

### 금융권 등 무과실 배상·사기죄 법정형 강화 범죄수익 몰수·추징 규정화... 경제유인 차단



한경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 출범식 및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스팸 문자 악성 앱 설치를 사전에 막고자 이를 걸러내는 3중 방어 체계를 마련하고 수상한 전화를 미리 탐지해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기술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불법 개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금융회사 등이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토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금융사에 범죄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AI 플랫폼 구

축 등 선제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했다"고 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같은 서민 다중 사기 범죄에 대해 무거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해질 수 있도록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민 다중 피해 범죄의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강화 규정화하고 범행 기간 중 범인이 취득한 재산을 범죄 수익으로 추징,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집행을 위한 강제 수사 규정을 준용토록 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할 필요성에 상호 공감했다"고 했다. /뉴시스

## 2차 소비쿠폰, 3일 만에 신청률 40% 넘어... 1조8583억 지급

"2차 소비쿠폰 신청자 총 1858만2887명"... 요일제 기준으로 대상자 약 68%가 신청 완료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3일 만에 전체 대상자의 40.75%가 신청했다고 행정안전부가 25일 밝혔다. 이날부터는 아름다운 가게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있게 된다.

이날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24시 기준 2차 소비쿠폰 신청자는 총 1858만2887명, 지급액은 총 1조8583억원이다.

행안부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 중이다.

요일제 기준으로 보면 지난 22~24일 신청 대상자(2725만3000명)의 약 68.2%(1853만3000명)가 신청했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

자가 1346만30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드는 292만2843명, 선불카드 184만4737명, 지역사랑상품권 지류 35만2275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대상자 대비 신청률은 전남이 45.97%(77만1112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 43%(121만936명), 세종 42.56%(14만8346명), 대구 41.08%(88만3838명), 대전 41.04%(53만6616명)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302만1618명(40.28%)이 신청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오전 9시부터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을 받고 있다.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와 달리, 고액자산가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선별 지급된다.

신청은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마쳐야 하며 지급액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재단법인 아름다운 가게도 소비쿠폰 사용처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름다운 가게는 기부 받은 물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을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사회책임기업으로, 행안부는 이곳의 공익성과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사용처에 포함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시스